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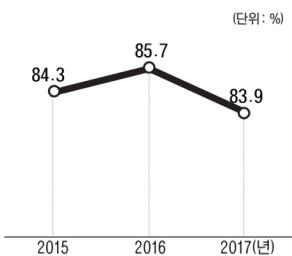
인성 키우고 진로 탐색... '화순 5개년 교육' 밑그림 나왔다

5개 분야 36개 사업 확정...중·고 방과후 학습 8개반 운영
 기숙형 공립학원 운영 방침...서열화·성적지향 논란 우려도
 광주~화순 공동학군제 공청회·설문조사 연기...무산 가능성

화순군이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걸고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이 살아야 화순이 산다'는 인식에서 출발,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할 위한 플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교육계 핫 이슈로 꼽혔던 광주와의 고교 공동지원제는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민 합의를 거친 뒤 추진키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5개 분야·36개 사업, 교육경쟁력 UP= 화순군이 최근 화순군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은 ▲인성함양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실력향상 ▲균등 교육기회 제공 ▲지역교육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순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꿈과 재능 찾는 진로직업박람

회'는 30개교 69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순창 육천인재숙·합천 남명학습관·의령 행복학습관 등과 유사한 개념의 중·고교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공교육 보조기관인 '화순 비전교육'도 8개반 200명(학급당 25명)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이들 학생들은 정규 종합반과 열린강좌반으로 나뉘어 집중 수업을 받게된다. 성적 향상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서열화나 성적지향 논란이 불거질 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우수교사 초빙제도 진행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 ▲국어사전 보급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전남기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 기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특성화고 학과개편 추진 등도 확정됐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도 파격적으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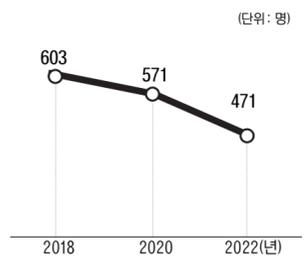
■ 화순학생들 지역 고교 진학률 (단위: %)



■ 화순지역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화순 고등학교 입학예정 학생 수 (단위: 명)



행한다.
 화순군은 아울러 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이 관내 고교로 진학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진학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타 20명 미만 소규모학교 성적 우수자들이 화순군 고교로 입학하면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농(離農) 현상과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교 전학을 위해 광주로 떠나는 인구를 막아보겠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고교 공동지원제는 무산? = 화순군은 지난해 6월 전남도교육청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랜 숙원인 고교 공동지원제(공

동학군제)를 추진키로 했었다. 광주~화순 공동학군제가 성사되면 지난 1993년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폐지된 이후 23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화순군은 당시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된 뒤 전남교육청에 광주와의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 시기를 미루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화순군 교육 실태는...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2008년 5610명에서 2013년 3710명으로 줄더니 올 해 2975명까지 급감했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연 평균 35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교생은 2008년 1975명에서 올 들어 2268명으로 늘어난 상태지만 중학교 졸업생 감소 현상으로 인해 올해부터 감소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교 학급 수는 25학급에서 오는 2022년에는 15학급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 교육계는 또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60%에 이르고 벽지학교 비율도 47.1%에 달하는 데다, 농촌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미흡해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이 키운 농산물 직거래로 저렴하게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엘로우시티 장성군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31일 장성군 진원면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장성군과 남면농협은 이날 로컬푸드 직매장

<사진>에서 유두석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했다.
 로컬푸드 직매장(면적 99㎡)은 지역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직거래 장터'로, 로컬푸드·공산품·정육·수산물·커피 등을 갖추고 있다.
 200여 명에 가까운 농업인이 300개가 넘는 품목을 출하하며 로컬푸드는 2단계 이하 최소 유통단계를 거친다.
 장성군은 임시 개장한 지난 한 달 동안 3억원의 매출을 기록, 지역민과 인근 도시 주민에게 호응을 얻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매일 자식처럼 기른 농산물의 맛과 영양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의 장터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찾아가는 산부인과' 고마워요" 장성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한 임신부들 반응이 뜨겁다. 지역 임신부들은 그동안 광주까지 가 진료를 받아왔다. 임신부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에게 산전 기본검사, 초음파 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비용도 전액 무료로, 지난달까지 임신부 11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호텔 매매 임대 교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호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상 4층, 객실58개
- 전체 리모델링 (6억 투자)
- 연수원 등 기타시설 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8억 (융자 8억포함)
- 임대/교환 협의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 영업으로 순수익 4억 가능!

